

뉴스 > 문화

'인상파의 고향' 노르망디 풍경

🕒 2014-12-21 05:01 | 🗨️ 나도한마디 | URL | 📺 | 📱 | 📧 | 🗣️ | 📄 | 📁 | + | -





얽히고 설킨 덩불숲, 제주도의 '곶자왈'입니다.

새벽, 낮, 밤의 정경을 이광호 작가 고유의 고무뱃과 바늘로 채색한 대작들입니다.

숲속 바람과 냄새와 습기까지 품은 듯 사실적입니다.

작가에게 곶자왈은 자연의 속살입니다.

[인터뷰:이광호, 미술작가]

"제가 생각하는 숲의 자연스러운 모습, 원초적인 숲의 원시성, 이런 모습을 제주도 풍경이 간직하고 있어서 숲을 그리게 된 거죠."

YTN 황보선[bosun@ytn.co.kr]입니다.